

진실은 역사의 랍업속에 묻힐수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어도 70년이 흘렀다. 그러나 전쟁의 파편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로근리량민학살사건도 남조선인민들 속에 원한과 분노의 아픈 추억으로 뚜렷이 새겨져있다. 때는 1950년 7월이었다. 7월 25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의 어느 한 마을에 기어든 미군은 후방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마을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였다. 여기에 타지방에서 피난온 사람들도 합쳐 500~700명이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미군은 그들을 끌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로근리의 쌍굴다리에 이르러 어디엔가 무전을 치고 사라져버렸다. 얼마후 두대의 비행기가 나타나 폭탄을 떨어주고 기총사격을 하여 100명 가까이 학살하였다. 다시 나타난 미군은 400~500명의 사람들을 쌍굴다리의 굴안에 밀어넣고 기관총사격을 했다. 이렇게 피난민들을 굴안에 가두어놓고 며칠간이나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굴안은 삼시에 시체로 가득차고 주위는 피비린내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사흘째 되는 날 굴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00여명뿐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생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미군에 의한 치명적인 로근리량민학살사건이다. 최근 미군이 전쟁당시 서울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자료가 새로 공개되어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은 조선전쟁 당시 인민군대의 남진을 저지할 목적으로 미군이 남조선땅에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이 최초로 공개되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동공군사령부가 B-29 폭격기 47대를 동원하여 서울 조차장을 폭격함으로써 조차장안의 철도가 파괴되고 그해 8월까지 이어진 무차별적인 집중폭격으로 무고한 서울시민 158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하였다. 자료들은 미국국립문서보관청에서 보관하고있던 원본과 편집영상 17점, 사진 80점으로서 1950년 7월 16일 미군이 서울지역의 통산철도정비장(당시 서울조차장)과 통산기지일대를 폭격한것들이라고 한다. 피난민들속에 인민군대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로근리량민학살사건이나 인민군대의 남진을 막아보겠다고 서울조차장을 집중폭격하여 서울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통산대폭격자나 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감행한 용서 못할 반인륜적인 죄악들이다. 미국이 《해방자》의 칼을 쓰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70여년간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과 고통을 들쳐왔는가. 그로 인해 우리 겨레가 흘린 피와 눈물은 삼천리강도 그 어디에나 진하게 스며배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사대대국세력은 두 녀학생이 미군의 무한개도에 갈라리 쫓겨오도 《동맹》을 먼저 떠돌고 핵전쟁연습반대를 웨치여도 《안보》를 운운하며 덮어놓고 미국편만 들고있다. 이번엔 서울시당국도 통산대폭격이 있었던 7월 16일에 우의 자료들을 전시하면서 《6.25전쟁발발로 서울과 통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발전, 성장해왔는지 집약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미군의 만행을 비호두둔 해나섰더니 이 일이나 얼빠진 망둥이도 망발인가 하는것이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 하지만 아픔의 근원을 잊어서는 안된다. 《잊혀진 전쟁의 잊혀진 이야기》로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로근리의 웨침인것처럼 남조선강점 미군의 야수적인 만행들이 《동맹》이라는 너울 아래 잊혀진 역사의 잊혀진 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 통산대폭격자료들이 다시금 응변해준다. 진실은 역사의 랍업속에 묻힐수 없는 법이다. 정 필

최근 남조선군부세력이 상천과 빈번한 축덕공문을 벌려 내외의 이목을 모으고있다고 한다. 지난 14일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의 장, 육, 해, 공군의 참모총장들이 남조선에 날아든 미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출출이 찾아가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긴밀한 공조유지》, 미국의 《억제태세》 강화를 구걸하였다고 한다. 그 전날에도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찾아가 《한미동맹》 강화, 남조선미군합동군사연습의 필요성과 그 시행방식, 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남조선미국의 군부수장들이 조선반도 및 지역내 안보정세 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북의 《핵, 미사일위협》억제를

위한 군사적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3대핵전력》을 총괄하는 미전략사령관이 《북핵위협》에 대응할 준비태세가 완벽하다고 언급한것이 의미심장하다. 합동군사연습시행이 약속된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핵

를 구걸하고 상전이 주도하는 여러 형태의 전쟁연습에 머리를 들이밀고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또 그런 모의관이 벌어지고 전쟁분장안을 벌려놓을 때마다 조선반도정세가 격화되고 지역의 평화가 위협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민심의 이러한 요구에는 귀를 틀어막고 외세와 침략적인 핵전쟁포의관을 벌려놓고 전쟁연습을 강행하려 하는것은 무모하고도 로골적인 대결망동이 아닐수 없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라고 그러한 대결망동이 도화선이 되어 언제 어느 순간에 대제양으로 번져질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사실들은 호전세력들의 안중에는 오직 반공화국압살의 어리석은 대결야망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상천과 불순한 공모결탁을 하고 위협천만한 망동에 매달릴수록 그것은 조선반도와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죄의 구렁렁이에 더 깊숙이 빠져드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권 일

위험천만한 전쟁대결모의편

우산》제공을 담보로 남조선을 《한미3자공조》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려는것이 분명하다 등의 이리저리한 분석과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남조선군부세력들이 미군부세력들을 만나 축덕공문을 벌리는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동맹》 강화, 《억제태세》 강화

하였다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더욱더 악화되는 보건위기사상과 그에 따른 민생을 위해서도 남조선군부가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엄청난 현세를 탕진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평화의 파괴자

지난 23일 말짱은 도쿄 올림픽경기대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올림픽의 송고한 리념에 부합해야 할 이번 경기대회가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로 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대회가 되고있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 도쿄 올림픽경기대회를 일독도가 일본령토로 표기된 지도를 도쿄올림픽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한데 이어 7월 중순에 발표된 《2021년 방위백서》에서 남조선방위당국에 의한 부정적대응이 계속되고있어 방위성과 《자위대》는 지속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밝히는 등 적반하장격의 《독도령유권》주장을 계속하고있다고 한다. 그러간 하면 과거 일제강점시기 올림픽선수로 출전하였던 조선사람을 일본인으로 둔갑시키는것과 같은 역사외국책동도 일삼아 남조선민심의 분노를 자극하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인터넷에는 매일같이 《평화의 축제가 올림픽인데 일본의 저런 정신으로 무슨 평화화가 오나.》 《애초부터 이번 올림픽을 보이코트했어야 한다.》는 글들이 있고 남조선 각계층에서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스카가와 마추라는것자체가 모욕이다.》, 《파렴치한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자.》는 분노의 함성이 날로 거세지고있다고 한다. 올림픽경기대회의 사명이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협조를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사회진보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금 악성비루스감염증사

태가 세계를 휩쓸고있는것으로 하여 도쿄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는 갈수록 고조되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속에서 인류의 평화속진인 올림픽마저 저들의 추악한 정치적목적과 재침야망현현에 악용하는 왜나라족속들의 행태는 왜나쁜것이다. 현실은 일본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천년속죄이고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평화의 파괴자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신성한 올림픽경기대회를 저들의 추악한 정치적목적현에 악용하는 일본은 세상사람들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 마땅하다. 본사기자 박철 남

협약한 민생고는 아랑곳없이

남조선사회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전례없는 폭염으로 숨쉬기도 가뭄타다 악성전염병의 4차대유행사태로 리당락과 집권야율현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각계의 비난을 받고하여 남조선의 민심은 말그대로 아우성이다.

민생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

리당락과 집권야율현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각계의 비난을 받고

《정권심판론》, 과연 통할것인가

《정권교체》를 반드시 하겠다는 《국민의힘》이 내 놓는것이 《정권심판론》이다. 악성전염병사태, 부동산문제, 재난지원금문제 등 《정부》의 실패들을 그 무슨 《공정과 정의》에 런게시키면서 《무능》, 《좌파독재》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제1야당이고 《국회》의 100석이 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국민의힘》에도 큰 책임이 있다. 걸음걸음 뒤따라제기만 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대책을 의논하기보다는 도적이야 하고 고야대고 지어 쇠뿔동이와 함마를 들고 뛰어 들어 《국회》를 란장판, 싸

움판으로 만들어 민생토의에 해방을 논것밖에 없었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다. 악성전염병 4차대유행문제만 보아도 지난해 저희네 폐거리들이 진행한 집회를 두고 《살인자》라고 몰아대더니 민주로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눈감아준다고 두말대는것을 보면 전염병을 막자는것보다는 저들의 집회가 옹당했다는 검은 속심이 엿보인다. 비난과 해방으로 《식물국회》를, 쇠뿔동이와 함마를 들고 《란장판국회》, 《동물국회》를 만드는것이, 악성전염병사태속에서도 집회를 벌리는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운운하는 《공정과 정의》인가. 그렇다면 과연 심판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을 한다고 곧잘 떠든다. 당지도부를 젊은 층으로 꾸리고 청년창업지원, 청년주택대책 등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는듯이, 그런가 하면 5.18광주인민봉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 광주에 내려가 《사죄》한다 하면서 《진

대》 등을 운운하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그리고 당시에 진보와 민주를 제창하던 《국민의 당》과 《통합》한다고 정치신과국을 벌린적이 있었다. 그때의 목적도 역시 《제2의 박근혜정권》을 창출해보려는 역겨운 입맞춤이었다. 《국민의힘》이 떠드는 《정권교체》와 《보수대통합》, 《파쇼가 판무하는 보수집권을 실현해보려는 야망의 쌍괴리소리가 아니겠는가.

어느때는 동작이 느리지만 먹이만 발견하면 빠른 혀를 뻗어 잡아먹는 카멜레온처럼 《국민의힘》도 행동보다는 혀가 제일 발달되어있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도 《민생》을 누구보다 제일 많이 떠들지 않는다. 카멜레온은 번식기를 제외하고 혼자 산다던데 《국민의힘》도 어느때는 오만스럽게 높아대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통합》, 《연대》를 내걸고 어느 누구에게나 추파를 던지다가 하면 《혁신》, 《쇄신》한다면서 민심을 끌어당겨보려고 별의별짓을 다 한다. 속담에 남의 죽음이 내 고통만 못하다고 했는데 남조선인민들은 극심한 민생고에 지쳐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이무 헤아릴수 없는데 그 아픔마저 당리당락과 집권야망현현에 악용하는 무리들을 과연 무엇이 라고 불려야 하는가. 본사기자 김정 혁

《포도원이》 《피피러의》 《피피러의》 최근 남조선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들이 거리낌없이 감행되어 사회적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최악의 이야기는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환자에게 L-tube(요로조 건 고무관을 넣는 의료장비)를 사용까지 당해 해 입으로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 약이나 미음 등을 주는 장치)를 넣다가 폐로 잘못 들어간 사고였다. L-tube를 넣고 나서 위장까지 잘 들어갔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미음을 주는 바람에 폐로 끈적거리는 미음이 들어가고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리고는 L-tube를 넣었다는 기록자체를 삭제했다. 가족들에게는 환자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며칠이 지난 뒤 그 환자는 사망했다. 가족들은 로인이 돌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 할머니는 생의 마지막 며칠간을 미음이 가득찬 폐로 밤새 헐떡거리며 죽어갔다 했다. 이처럼 의료위법반은 주로 병원이 리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개인일탈이 아니라 병원이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인것이다. 잡지는 글에서 끝으로 서울의 한복판에 이런 범죄자들이 가득한 소굴이 적지 않던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범죄자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병원은 합법적인 범죄조직인가고 의미심장한 물음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사고들이 근절되지 못하고있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의사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의사사격을 잃지 않고 성범죄 등 강력범죄피자가 있는 의료인이면 면죄부 존재하고있는 남조선의료계의 구조적모순과 함께 사람들의 생명을 한갖 돈벌이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병원들의 그릇된 관점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생명유에 돈을 놓는 그런자들에게서 의술은 인술이 아니라 《돈술》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사기자 김광 혁

《정권심판론》, 과연 통할것인가

《정권교체》를 반드시 하겠다는 《국민의힘》이 내 놓는것이 《정권심판론》이다. 악성전염병사태, 부동산문제, 재난지원금문제 등 《정부》의 실패들을 그 무슨 《공정과 정의》에 런게시키면서 《무능》, 《좌파독재》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제1야당이고 《국회》의 100석이 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국민의힘》에도 큰 책임이 있다. 걸음걸음 뒤따라제기만 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대책을 의논하기보다는 도적이야 하고 고야대고 지어 쇠뿔동이와 함마를 들고 뛰어 들어 《국회》를 란장판, 싸움판으로 만들어 민생토의에 해방을 논것밖에 없었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다. 악성전염병 4차대유행문제만 보아도 지난해 저희네 폐거리들이 진행한 집회를 두고 《살인자》라고 몰아대더니 민주로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눈감아준다고 두말대는것을 보면 전염병을 막자는것보다는 저들의 집회가 옹당했다는 검은 속심이 엿보인다. 비난과 해방으로 《식물국회》를, 쇠뿔동이와 함마를 들고 《란장판국회》, 《동물국회》를 만드는것이, 악성전염병사태속에서도 집회를 벌리는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운운하는 《공정과 정의》인가. 그렇다면 과연 심판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민족고전소각에 비끼 일제의 악랄성

독자를 처벌하였다. 라는 기록들은 일제의 범죄적인 도서소각만행의 일단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1910~1918년에 1차로 《소각처분》의 명분을 내걸고 전국 방방곡곡의 서인, 사찰, 향교, 서당들을 대상으로 강제고전소각을 수색압수 하였으며 이 시기에도 다 수탈할수 없게 되자 1937년까지 그 수탈시기를 연장하였다. 일제는 1차로 수탈한 도서들을 소각하는 한편 수많은 어용학자들을 전국각지에 내보내어 1937년까지 수많은 도서들을 압수하였다. 일제는 도서들을 불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책들을 숨겨두거나 몰래 읽는 애국적인민들에 대해서는 감옥으로 끌어가는 폭거도 감행하였다. 일제의 서적압수소동과 검거만행에 대하여 당시의 한 출판판은 《합방즉시 조선력사를 적은 서적을 불수하여

독자를 처벌하였다. 라는 기록들은 일제의 범죄적인 도서소각만행의 일단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1910~1918년에 1차로 《소각처분》의 명분을 내걸고 전국 방방곡곡의 서인, 사찰, 향교, 서당들을 대상으로 강제고전소각을 수색압수 하였으며 이 시기에도 다 수탈할수 없게 되자 1937년까지 그 수탈시기를 연장하였다. 일제는 1차로 수탈한 도서들을 소각하는 한편 수많은 어용학자들을 전국각지에 내보내어 1937년까지 수많은 도서들을 압수하였다. 일제는 도서들을 불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책들을 숨겨두거나 몰래 읽는 애국적인민들에 대해서는 감옥으로 끌어가는 폭거도 감행하였다. 일제의 서적압수소동과 검거만행에 대하여 당시의 한 출판판은 《합방즉시 조선력사를 적은 서적을 불수하여

게 되자 일제는 《조선사》를 편찬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귀중한 사료들을 몰수하여 저들의 외국편력사편찬에 도움이 될 자료만 남겨놓고 모조리 없애치우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도 성치자 않아 일제는 조선에서 쫓겨가면서 어용사관들을 시켜 《조선사연구》문서와 수많은 조선사 사료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를 또다시 저질렀다. 일제의 이러한 민족고전소각살행위로 하여 해방전까지 조선의 귀중한 민족고전들은 거의나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일환으로 력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압수하여 수습만이나 소각하였다.》고 지적한바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의 력사도서들을 몽땅 회수하여 없애버리려던 저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



《포도원이》 《피피러의》 《피피러의》